

엔貨強勢의 現況과 波及效果

韓 振 奎*

최근 들어 일본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계에서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엔고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일본과 경쟁중인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수출수요의 증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상쇄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이 엇갈리고 있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엔고현상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고현상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식에 따라서는 엔고현상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화가치의 변동추이와 그 배경, 향후 전망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엔화가치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엔화강세의 현황과 배경

(1) 최근의 엔화가치 변동추이

최근 엔화가 절상되는 속도를 보면 ‘기록적’이라는 표현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엔화가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2월 이후로서 1992년 4/4분기는 물론 1993년 1월에도 엔화의 대달러 환율은 122~125엔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금년 2월초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장이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엔화가 큰폭(15~20%)으로 절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일본정부의 사상최고의 무역흑자 발표, 미국 재무장관 및 클린턴 대통령의 엔화강세 용인 가능성 시사 등이 잇따르면서 엔화의 가치는 빠른 속도로 절상되어 왔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은 1993년 4월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23일 현재 110.4엔으로서 1992년 4월말에 비해서는 20.8%, 1992년말에 비해서는 12.9%가 절상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엔화의 강세 현상은 비단 달러화에 대한 환율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엔화는 거의 모든 통화들에 대해 사상최고치 수준으로 절상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절상폭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엔화의 대마르크화 환율은 1992년말의 78~9엔에서 1993년 4월말에는 69엔대로 급락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 통화가 대부분 마르크화에 연동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마르크화 환율변동은 엔화가 프랑스 프랑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하여 동반절상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2 참조).

최근 엔화의 대미 달러환율의 변동추이를 볼때 특기할 만한 점은 3월 하순 이후 엔화 가치의 절상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년 1월말까지만 해도 엔화의 달러당 환율은 1992년말 대비 0.3% 상승된 수준에 머물러 정상적인 엔화가치 변동폭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월 들어 버그스텐의

〈표 1〉 주요환율의 변동 추이

(단위 : %)

	¥/\$	DM/\$	¥/DM	¥/L	¥/F.fr	₩/100¥
1985	238.5	2.944	81.0	309.2	26.5	364.7
1986	168.5	2.172	77.6	247.2	24.3	523.1
1987	144.6	1.797	80.5	237.1	24.1	568.7
1988	128.2	1.756	73.0	228.3	21.5	570.8
1989	138.0	1.880	73.4	226.3	21.6	486.7
1990	144.8	1.616	89.6	258.5	26.6	488.8
1991	134.7	1.660	81.1	238.3	23.9	544.4
1992 1/4	128.4	1.619	79.3	227.4	23.3	596.8
2/4	130.3	1.614	80.7	235.5	23.9	601.7
3/4	124.9	1.463	85.4	237.9	25.2	630.4
4/4	123.0	1.550	79.4	194.2	23.4	638.7
1993. 4.23	110.4	1.596	69.2	173.9	20.7	721.0

주 : 평균환율 기준임.

자료 : AP-DJ.

〈표 2〉 일본 엔화의 주요통화에 대한 절상을 비교

(단위 : %)

	1992년 4월말 대 비	1992년 말 대 비	1993년 1월말 대 비
미 달러 화	20.8	12.9	12.6
독일 마르크 화	16.1	11.2	12.8
영국 파운드 화	36.4	8.3	6.3
프랑스 달러 화	15.3	7.5	11.2
캐나다 달러 화	27.8	12.1	12.1
이탈리아 리라 화	44.4	14.3	12.4
대만 원 화	19.4	13.0	12.7
한국 원 화	19.0	12.5	11.4
싱가포르 달러 화	14.6	9.4	9.4

주 : 기말환율 기준임.

자료 : AP-DJ.

발표 이후 엔화환율은 5.5%가 추가로 절상되었고, 3월에는 2.4%가 추가로 절상되었다. 그러나 3월중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엔화가치 상승추세는 하순 이후 급속히 절상속도가 빨라져 4월에는 23일 현재 무려 4.8%가 절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엔화가치 급등의 배경

이와같은 엔화가치의 급등현상은 당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그 이면에는 구조적 요인과 순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화의 초강세를 야기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일본의 무역흑자 확대와 이에 따른 통상압력, 지속되는 G-7국가들의 엔고유도 합의설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1992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8.0%가 증가한 3,397억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7%가 감소한 2,326억달러로서 통관금액을 기준으로 한 무역수지 흑자는 1,076억달러에 달하였다. 이같은 일본의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37.6%가 증가한 수준으로서 사상최대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미흑자는 전년대비 14.3

%가 증가한 436억달러, 대EC흑자는 14.0%가 증가한 301억달러, 대아시아지역 흑자는 31.6%가 증가한 417억달러에 달하였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교역국에 대해 일본의 무역흑자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미국, EC 등은 일본에 대한 무역불균형 시정압력을 강도 높게 가하게 되었고 엔화가치 절상요구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사실상 2월중 엔화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면에는 선진국들이 무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엔화의 절상압력을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문도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엔화가치 절상과 일본의 내수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미·일간의 경제구조 조정압력을 가속화해 온 미국은 엔화의 급속한 절상추세를 방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월 이후의 엔화강세 현상은 경기순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3월중 발표된 미국의 제경제지표들은 경기회복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증가속도가 매우 느림을 시사했다. 이러한 현상은 1992년 4/4분기의 높은 경제성장의 여파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달러화약세 및 엔화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클린턴 행정부가 재정적자 삭감과 증세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환투자자들의 달러화 기피 및 엔화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재정적자가 삭감되는 경우 미국의 경기회복속도는 늦추어질 수밖에 없고 이의 보전을 위해서는 저금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일본정부는 모두 13조엔에 달하는 경기부양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엔고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즉,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경우 일본경제가 장

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엔화가치 역시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엔고를 부추긴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자 외환투자자들 사이에는 엔화에 대한 선취매, 달러화에 대한 투매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엔화가치의 절상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더욱이 경기부양대책을 전후하여 니케이지수가 큰폭으로 회복되면서 일본으로의 국제투자자금 유입이 늘고 있어 엔화강세 지속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엔화가치의 향후전망

현시점에서 향후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현재 엔화자체가 급격한 절상추세를 시현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여건 역시 불명확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태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경제상태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110엔을 저지선으로 강세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같은 판단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및 독일의 연방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일본은행과의 정책협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엔고추세를 반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일본은행의 시장개입만으로는 엔고억제에 한계가 있다. 일본은행은 엔화의 달러당 환율이 연일 급상승하자 4월초부터 간헐적인 시장개입을 시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G-7의 엔고용인설 등을 대두시키면서 엔고현상을 부추겼을 뿐이다.

둘째, 금년 7월에는 G-7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문제가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축소방안의 하나로 엔화강세현상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엔화강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제, 일본의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엔화가치의 반락위험은 비교적 낮다. 이는 수년간 일본기업들이 유가증권 등 해외투자자산의 가치하락 및 환차손 발생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어 과거의 저금리시기와 같이 대규모의 자본유출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제,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하여 엔화가치의 절상과 일본의 내수확대를 요구하고는 있으나 달러화 가치의 급속한 하락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본 엔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절상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예견되며,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더우기 달러화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는 경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달러화 약세저지를 위한 금리인상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금리인상시 경기회복속도는 더욱 느리게 됨을 감안할 때 미국 역시 지나친 엔고현상은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1986~1987년 기간중의 엔고현상과 비교할 때 금번 엔화가치 절상추세는 그 강도가 약한 편이며, 일본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의 엔고현상이 일본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비교적 작을 수 있다. 더우기 일본 정부 역시 엔화를 국제통화로 육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엔화가치 절상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화가치 강세기조가 역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금년중 엔화의 달러당

환율은 110엔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강세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있어 이의 보전을 위하여 일본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에 경주하고, 그 결과로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하반기중 엔화의 달러당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105엔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기는 힘들며 110엔 부근의 강보합세를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 엔화강세의 파급효과

(1) 일본기업의 가격결정 형태

엔화가치의 절상현상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일본의 기업들이 엔화가치 상승에 대응하는 행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수출가격(또는 수출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환율, 제조원가, 경쟁국의 수출물가 및 자금조달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수의 변동분은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轉嫁)되어 수출물가를 변동시키는데 전가의 정도는 기업의 전략과 가격설정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환율면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영업환경에 직면하고 있었다. 1986~1987년의 급격한 엔화절상기 직후인 1988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할때 1988년 2/4 및 4/4분기를 제외하고는 전분기에서 기준시점보다 높은 대미 환율수준이 유지되어 왔다. 1992년중에도 기준시점보다 약 2% 평가절하된 엔화의 화율수준이 유지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적 수출물가 상승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엔화가치 상승추세는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이 향유해 온 환율측면의 호조건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정치(精緻)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함수관계 설정을 통한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가격 결정행태 및 수출물가 상승압력 전가정도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수출물가 변동요인을 전가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소위 '시장중시형 가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었으며 환율변동과 경쟁국 수출물가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채산성을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환율부문에서 1%의 수출물가 상승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기업들은 이 중 40~50%만을 수출물가에 전가시키고 있으며, 경쟁국의 수출물가가 1% 상승하는 경우에도 자국의 수출물가는 0.3%만 상승시켜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물가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으며 수출기업들은 경영악화 없이 지속적인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기업들의 가격결정행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금년중 일본기업들의 수출물가는 약 4~5%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물량조정은 다소 늦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출물량은 1년에서 1년반의 시차를 두고 약 5~6% 감소하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발간된 일본 경제기획청의 보고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경제기획청은 엔화절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부품부문에서 적지 않은 타

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비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은 정밀기계와 고급전자제품 등은 엔고현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엔고의 결과로 발생한 5~6% 수준의 일본의 수출감소분을 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경쟁국들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품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엔화강세현상은 우리나라 수출액과 수입액을 모두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입액 증가분보다는 수출액 증가분이 다소 커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개선이 예상된다.

우선 수출측면을 보면 엔화강세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수출단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것은 엔화강세로 인하여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부품·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이의 일부가 제품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 작성된 한·일간 국제산업연관표를 볼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일본산 중간재 투입은 4.3%로서 엔화가 10% 절상되는 경우 0.4%의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에는 업종별 대일 수입중간재 투입계수가 정리되어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 기계류 등 주요 수출산업의 대일 중간재 의존도는 매우 높다. 엔화가치가 10% 절상되는 경우 이들 업종에서는 약 1%의 제조원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원가 상승압력은 엔고에 따른 일본제품 가격의 상승폭보다는 낮아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이 증

*주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진규, 「한국·대만·일본의 수출물가 결정요인분석」, 산업연구원, 1993. 2를 참조.

가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엔화가 10% 평가 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수출증가액은 약 20억달러 수준으로서 자동차, 가전, 반도체 및 조선부문의 수출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절대규모를 볼때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는 일반의 예상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분석은 전술한 바와같이 일본기업들의 환율변동분 전가도가 낮고 금년중 세계의 수입신장률이 3%선으로 비교적 낮을 전망이다. 데다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에 처해 있어 일본제품의 부분적인 가격인상만으로 급속한 수출수요 신장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중 60% 이상은 비가격경쟁력에 수출이 크게 좌우되는 중화학제품이어서 엔고에 따른 수출증가액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우기 1986~1987년의 기간중 급속한 엔고현상을 경험한 바 있는 일본기업들은 자동차·가전부문을 중심으로 미국, ASEAN 등지에 해외생산체제를 구축, 자국 및 제3국에 수출하고 있어 엔고에 따른 급속한 수출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표 3〉 업종별, 대일 수입증가액 투입계수

제조업평균보다 높은 업종		제조업평균보다 낮은 업종	
(단위: %)			
전기 및 전자	0.11713	섬유 직물	0.02420
자동차	0.08992	섬유사	0.02116
선박	0.07896	종이·인쇄·출판	0.01486
산업용일반기계	0.07512	제재 및 목제품	0.01330
화학제품	0.06776	비금속광물제품	0.01305
의복	0.06583	석탄제품	0.00353
합성수지	0.06363	석유제품	0.00347
정밀기계 및 기타제조업제품	0.06140	음식료품	0.00255
기타운수수지	0.05283		
고무	0.05150		
1차금속제품	0.04975		
혁제품	0.04852	제조업평균:	0.0427

자료: 한국은행, 1985년 한·일 국제산업연관표, 1991.

된다.

수입측면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단가 상승과 이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일수입이 가격변동에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량감소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우기 1992년의 경우 엔화표시 수입액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달하고 있어 수입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엔화가 10% 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은 약 16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문별로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철강재,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및 기계류의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표 4〉 품목별 대일 수입의존도

(단위: 억달러, %)

	1991			1992		
	전체수입(A)	대일수입(B)	B/A	전체수입(A)	대일수입(B)	B/A
총수입	8152	2112	25.9	8178	1946	23.8
수출용	2472	752	30.4	2572	735	28.6
내수용	5680	1360	23.9	5606	1211	21.6
화학제품	54.7	17.9	32.7	51.2	17.8	34.8
철강재	47.0	13.2	28.1	33.9	16.7	49.3
기계류	140.4	61.1	43.5	132.5	52.9	39.9
전기·전자(부품)	100.0(69.7)	43.8(30.5)	43.8(43.8)	107.5(76.7)	42.0(30.5)	39.1(39.8)
자동차부품	8.6	4.7	54.7	9.4	5.7	60.6

주: 통관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이상을 종합해 볼때 엔화강세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약 4억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며 가격조정이 물량조정에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도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이 예상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엔화 표시 수입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변화하게 될 것이며, 무역수지 역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평가 및 시사점

비록 그 정도가 일반의 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엔고현상이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수출에 다소나마 개선된 여건을 제공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엔고현상은 수출잠재력의 신장요인으로, 또는 수출잠재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엔고에서 파급된 일본기업들의 가격인상에 안주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고현상은 우리 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제품에 밀리고 있는 것은 비가격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엔고현상을 비가격경쟁력 제고의 호기로 삼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율변동은 가격경쟁력을 변화

시키는 효과도 가져오지만, 그 변동양상이 중·장기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수출상품의 구성과 산업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엔고현상을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인 수출증가에 안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산부품 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배가해 가야 할 것이다. 대일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엔고에 따른 단기적 수출증가에 안주하는 경우,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 및 후발개도국들의 추격 가속화로 우리 수출이 설 땅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6~1987년의 엔고의 영향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사상 최고의 무역흑자를 시현해 오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끝으로 이번 엔고현상을 계기로 일본 엔화의 국제화현상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투자 및 장기차관 도입·공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환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선진금융기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질 좋고 값도 싼 우리나라 타이어를
세계가 알아줍니다.**